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연구 -

최 종 혁

(강남대학교)

이 연

(동아인재대학)

유 영 주

(강남대학교)

안 태 숙

(강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인터뷰를 토대로 기노시다(木下康仁)에 의해 창안된 수정근거이론(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을 활용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잠재적 역량과 자존감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주체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배제 해소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은 다양한 창작체험기회 제공, 과정중심의 비정형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체화, 공동체활동 등의 접근전략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창의적 역량과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적 충족감을 느끼고 가족 및 대인관계의 향상, 긍정적 자아상 확립, 역량강화, 공동체활동 참여 등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별주의적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문화를 접목시킨 보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제어 :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배제, 사회적 낙인, 문화, 문화향유, 문화복지프로그램

1. 서론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빈곤으로 인한 차별, 소외, 박탈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기회의 박탈에 따른 문화적 배제로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특히 빈곤층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낙인(stigma)을 주어 왔고, 서비스 또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인 구호에 한정됨으로써 문화향유권의 배제를 초래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문화복지¹⁾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화복지는 문화향수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80년대 '복지사회의 실현'을 국정 기본방향으로 정하면서 문화복지를 표방하였고, 1989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생활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문화가 복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세계화정책 선언²⁾ 이후 삶의 질 세계화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하면서 생활권과 문화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는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참여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문화권 보호'를 정부의 문화정책 기본구도로 설정하고, 창의적 역량강화와 문화산업의 국가발전 동력화를 지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추진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는 90년대 초반 이후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생활시설중심에서 이용시설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지역사회자원의 참여가 강조되고 서비스 전달과정에 다양한 전문직이 참여하게 되었다. 종래의 수직적 전달방식에서 다양한 자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전달방식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교육복지, 문화복지, 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등장하였으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 보건, 의료,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영역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제공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의 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점차 발전해 감에 따라, 비록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문화활동과 결합된 복지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다.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는 방과후 공부방, 문화체험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운영, 미술, 음악, 연극, 가요, 댄스강습 등과 같은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저소득

1) UNESCO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이념에 입각하여 문화정책 상황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로 미루어 삶의 질과 관련하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그 이전부터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 대통령 보고(1996.2.15, 세계화추진위원회)

층과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관람권(문화바우처)을 제공하는 등 문화향수 기회와 문화권을 신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의 집, 주민 자치센터, 자활후견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도 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문화복지실천가들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문화복지 또는 문화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극소수의 연구도 주로 문화복지의 개념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시적·방법론적 차원에서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으로 규정한 최현묵(2008), 조현성·김세훈(2008), 현택수(2006)의 연구,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문화복지를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한 최옥채(2007)의 연구, 광의적 사회복지 개념에서 문화복지를 제도적 복지로 규정한 오혜경(2006)의 연구, 문화복지실천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시도한 최종혁·이연·안태숙·유영주(2009)의 연구³⁾ 등이 그동안의 대표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외에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역할 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과연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시론(試論)적 연구이기는 하나 이를 단초로 문화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복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와 실천현장에서의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 노력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제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공공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3) 최종혁은 문화복지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좁게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넓게는 일반대중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개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문화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 잠재역량 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일체의 문화예술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종혁 외, 2009: 177).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일컫는다(김세훈·김정열·모선희·설동훈·김미권, 2005).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이 이에 속하며, 외국인근로자들 또한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재소자나 군인 등 특정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계층들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할 수 있다(신선정, 2008). 현실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생계가 어렵고 문화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문화적 활동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은 상당히 크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⁴⁾ 사회적 배제란 사회가 분화·고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의 주류(mainstream)영역에 대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들의 참여기회가 차단되고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Berghman, 1995; 송다영, 2003: 298). 이러한 개념에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자 이러한 상태가 야기되는 과정(Hills, Le Grand and Piachaud, 2002; 이익섭·최정아·이동영, 2007)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결핍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사회의 주도적 규범으로부터 이탈·배제된 집단의 존재를 의미하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Williams and White, 2003).

국내에서의 사회적 배제 개념 역시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이 빈곤의 대체개념으로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⁵⁾ 주로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는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공간적·제도적 차원에서 소수의 사회적 부적응자, 빈곤계층, 하위계층 등의 사람들이 주류사회에서 차단되는 현실(류지웅, 2006: 35)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그 사회의 빈곤계층이기 쉬우며, 삶의 제 영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장애인, 노인이나 아동, 저소득모자가족, 노동빈민, 공공임대주택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 쉽다(송다영, 2003; 윤성호, 2005; 김위정, 2003; 류지웅, 2006; 오영훈, 2008)⁶⁾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⁷⁾.

4)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개념으로 1980년대 중반이후 서구 복지선진국들 및 유럽 연합에서 빈곤과 실업문제를 다룸에 있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Byrne, 2005: 5-6; 문진영, 2004: 254, 박영미, 2008).

5)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노동빈곤층의 확대,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에 대한 규명을 수행하면서 최근의 빈곤 양상이 과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신빈곤(new poverty)'이라 규정하는 연구가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김정원, 2007: 21-22).

6) 1998년 OECD 사회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사회적 배제계층은 아웃사이더, 하위계층, 복지존계층, 신빈민계층 등으로 극단적인 빈곤이나 소외계층만이 아니라 배제될 위험이 높은 계층을 포함한다(오영훈, 2008: 21).

7)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배제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연구로는 박병현·최선미(2001), 심창학(2001), 신명호(2004) 등이 있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

이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반영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배제 역시 복지, 고용,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대표적 취약계층인 빈곤계층은 물론 사회계층구조 상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환경에서의 소외가 문화적 차원까지 확장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주로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고용에 대한 접근성, 교육, 복지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빈곤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일정한 현금급여 또는 현물, 바우처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자활센터지원사업과 노동부의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및 실업자 직업훈련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적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고, 복지, 고용, 교육 등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배제 현상은 사회적 낙인과 함께 악순환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노력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국가복지의 수혜 대상을 분별해 내는데, 이때의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여 수혜대상자들은 자칫 수치감(stigma)을 갖게 될 수 있다(주재현, 2004). 또한 빈곤선으로 빈민을 또 다른 인구집단으로 구별하여 빈민, 저소득층, 하층계층, 수급자 등 사회적 관계의 분절적 요소를 제공하며 국가의 규제,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그들을 구분한다(우아영, 2007). 이러한 공공복지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문제를 물질적 결핍상태의 경제적 빈곤, 즉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여 실제 다양하고 복합적인 빈곤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적 측면만 강조한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도시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도시빈민의 주거지는 사회공간적으로 계도화(ghetto)된 형식을 보이며 계층 간의 위화감과 사회문화적 배제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규정을 시도한 문진영(2004)의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대상별로 접근한 연구로는 김상호(2003)의 빈곤노인의 사회적 배제 연구가 있으며, 송다영(2003)은 저소득 모자가정을, 윤성호(2005)는 노동빈민을, 그리고 김위정(2003)은 공공임대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류지웅(2006)의 경우 다민족 사회에서 소수민족이 배제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소수자로 보고 그들의 사회적 배제 연구를 다루었다.

상대적 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도시빈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차원은 훨씬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김성윤, 2005).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빈곤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인 '근로빈곤층'이 핵심이며(김영란, 2004), 이들은 복지급여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서 사회보험의 실효성이 없는 계층을 말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을 구조적으로 키우는 부정적 기능과 함께 이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변종임·고영상·고혜원·강창현·이희수·채재은, 2007: 24)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낳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분리와 차단을 의미했던 반면, 오늘날의 확장된 배제의 개념은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제도적 차원에서 다차원적이고 축적 또는 중첩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정책 및 복지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낙인과 함께 악순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복지프로그램 현황

현실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자신의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다른 계층에 비해 문화향수의 기회 및 문화창조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가 쉽고, 이는 곧바로 문화취약계층으로 전락되어 문화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취약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및 문화활동경험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계층사이의 이동(social mo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문화자본(김기덕, 2007: 371)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통상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자본으로서의 문화복지를 바라보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문화복지프로그램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1) 외국의 문화복지프로그램 현황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외국의 문화복지프로그램 현황은 문화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과 관련한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문화정책 지향을 접근권 보장에 초점을 둔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확대 사업으로는 아이오와 주의 'I-CARD(Iowa-Cultural Alliance Recruitment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기관의 무료 및 할인입장이 가

능한 카드를 나누어 줌으로써 이들의 경제적인 빈곤에 관계없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사례로는 링컨센터극장의 경우로 저소득층과 흑인 계층에 대한 가격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신입회원 56%가 저소득층, 44%가 흑인계층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⁸⁾. 이밖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뉴욕의 'Theater Access Project(TAP)' 프로그램(양건열, 2003)⁹⁾, 노인을 대상으로 한 케네디 센터의 특별티켓할인제도¹⁰⁾ 등이 있다.

영국의 문화정책은 1997년 토니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요한 변화를 보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에서 '접근성 제고' 영역이 크게 강조된 것이다. 특히 강조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으로 토니블레어 정부 동안 모든 정책의 강조점이 사회적 배제 그룹에 대한 포용전략 아래 이루어졌다(조현성·김세훈, 2008). 영국의 저소득층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문화예술향유 활동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Space for sport and arts'가 있으며¹¹⁾,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 레저, 재활, 교육, 일자리 기회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Day Service'¹²⁾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밖에 Gateshead 지역의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지역의 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 갈 때 보다 저렴한 할인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Getting There Art Taxi Scheme' 프로그램(조현성·김영범·이주연, 2003) 등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는 '병원으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주도와 메세나 협조로 주로 영화, 도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병원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감옥으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프랑스의 법무부와 문화통신부의 협조를 통하여 2003년에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이 밖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해외 이주민, 사회적 취약계층,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¹³⁾.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본 문화정책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¹⁴⁾과의 연관성 검토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이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련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의 제거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가

8) 박미애(2009)의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 관련 사례연구"의 내용을 재작성 하였음.
 9) 장애인들이 뉴욕시의 공연예술을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을 예약하여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0) www.kennedy-center.org
 11) 대상지역의 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교시설의 설립 및 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편으로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회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 청소년범죄라든지, 비행, 탈선의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빈곤으로 청소년이 예술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이경아, 2007).
 12) www.birmingham.gov.nk
 13) 조현성·김세훈(2008)의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의 내용을 재작성 하였음.
 14) 2005년 7월 11일 국토교통성은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자유로이, 사용하기 쉬운'이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정책 대강을 공표하였다.

있는 사람들의 예술활동 및 예술작품이 단순히 재활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예술로서 감상되고, 사회에서도 예술로 인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요타 장애인 예술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일본은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2) 국내의 문화복지프로그램 현황

우리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 228만 명, 노인 517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152만 명, 외국인 근로자 115만 명으로 전국 추계인구 4,860만 명 중 약 20.8%를 차지한다¹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현황¹⁶⁾은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문화활동 체험율이나 만족도 및 문화적 수요에 있어서도 계층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방향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문제를 단순히 사회보장 및 고용창출의 문제로만 인식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폭넓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물질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04).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은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의 성격에 따라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¹⁷⁾. 2009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복지사업은 '찾아가는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찾아가는 박물관, 국민문화향유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 및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소외계층 문화나눔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로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이 지원되고 있고, 간접적인 공연관람의 가격혜택을 주는 사랑티켓제도가 있는데, 이는 공연 및 전시관람 등 문화예술 향수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다.

15) 장애인(등록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노인(65세이상)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현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외국인노동자(등록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외국인) : 통계청(2009), 2008 체류외국인현황

1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조사주기를 2년으로 조정,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조응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자를 2003년까지는 2,000명, 2006년에는 3,000명, 2008년도에는 4,000명으로 증가시켰으며, 국민들의 여가생활, 예술향유,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이용, 문화활동 참여, 역사유적지 방문, 지역축제 관람, 그리고 사이버 문화활동 및 매체이용 예술감상 등을 측정한다.

17) 문화정책국에서는 복권기금과 통합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관람권 제공 등의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으며, 문화산업국은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과 장애인 영화제 지원, 체육국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예술국의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향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산하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의 객석 나눔 사업, 국립국악원의 아시아근로자를 위한 국악공연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외계층 대상 어린이를 위한 체험교육 등 많은 문화복지프로그램들이 각 부서별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6년 '아르코 2010'을 발표하면서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소외지역 예술순회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으로 복권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연, 전시, 영화 등 프로그램의 입장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문화바우처 사업과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시설을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순회하는 소외지역 문화복지프로그램 사업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009년 3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사업은 두 부처가 복지시설 생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맡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역의 문화 및 복지기반 시설에 개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이 많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협약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과 일반 아동·청소년의 활동 참여 증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문화예술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에 문화관련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계층과 대상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그 외 기관에서 명시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뉜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계층 간 문화향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 밀집지역인 경기도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악기교습활동',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재가 방문 문예활동',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문화예술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마을잔치(작은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연단체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수자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활동지원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문화복지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기본 이념을 미국과 영국은 '접근권 보장'과 '사회적 포용'에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저소득층이 일반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지원한다는 점, 또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을 복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문화예술의 시대에 발맞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정책을 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회적 문제까지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기회평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특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이들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미애, 2009).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은 기노시다(木下康仁)에 의해 창안된 수정근거이론(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이다(木下康仁, 2003; 木下康仁, 2007). 수정근거이론의 특징은 근거이론과는 달리 개념형성과 함께 포괄적으로 상위의 카테고리를 구상하고, 그 개념을 통하여 생데이터(raw data)를 조명하는 '동시병행적 다중 사고'로 진행해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최종혁 외, 2009:158). 동시에 기존의 근거이론에 비하여 매우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¹⁸⁾. 아직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은 질적연구방법이나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근거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1)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근거이론을 활용한 질적 조사연구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경향은 참여관찰보다는 대상자 면접이 주류를 이룬다¹⁹⁾.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 면접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대상자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질적연구는 대상자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을 전문가추천사례선택 방식(reputational-cases selection)과 점진적확대표집방식(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문화복지사업에 비교적 높은 역량을 보이는 기관의 실천가를 우선으로 하여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차 면접 대상자는 문화영역 2인, 공공행정 1인, 복지영역 2인을 선정하였다. 2차 대상자는 1차 대상자들로부터 얻어진 자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심층적인 질문지를 구성한 후, 다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문화영역과 복지영역 각각 2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3차 면접 대상자는 1, 2차 참여자 9인 중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으로 문화영역 1인, 복지영역 1인을 선정하고, 1, 2차 면접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영역 1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3차 면접에서는 분석내용을

18) 수정근거이론이 갖는 실용성은 첫째, 근거이론에 비하여 수집된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절(分節)화하지 않음으로서 분석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둘째, 근거이론과 같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방코딩과 선택코딩으로 단순화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개념의 포화상태와 관련하여 수정근거이론에서는 각 개념별로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 넷째, 개념 생성이 각 작업시트별로 진행되므로 개념의 발견이 용이하고, 관리 또한 편리하다. 다섯째, 연구주제, 분석주제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분석자가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료하게 해준다는 것이다(최종혁 외, 2009:159).

19) 이는 전자가 연구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후자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적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확인하거나 문화복지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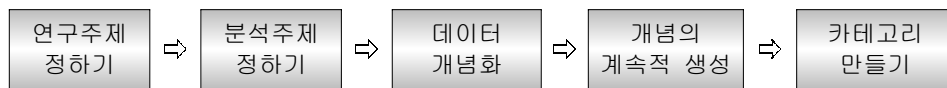
〈표 1〉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터뷰방식	이 름	성별	나이	분 야
1차	집단면접 (간담회방식)	나 O O	남	49	문화예술
		이 O O	여	33	사회복지
		오 O O	여	40	문화예술
		진 O O	남	45	문화정책
		최 O O	여	34	사회복지
2차	집단면접 (간담회방식)	이 O O	여	42	사회복지
		김 O O	남	35	사회복지
		조 O O	여	47	문화예술
		이 O O	남	42	문화예술
3차	개별면접	이 O O	여	42	사회복지
		조 O O	여	47	문화예술
		강 O O	여	40	사회복지

자료수집기간은 자료분석기간과 비교적 일치하며 2008년 9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다. 자료수집에서 1차, 2차 면접은 소집단간담회 방식을 택하였다. 소집단간담회 방식이 집단역동성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차 면접에 앞서서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들을 준비하였다. 2차 면접 문항들은 1차 자료수집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3차 면접에서는 이미 2차례의 집단면접과정을 거치면서 분석내용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상태였으므로 기존의 내용을 확인 검증하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1:1 개별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2) 자료분석방법

수정근거이론에 있어서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림 1〉 자료분석과정

연구주제의 설정은 분석주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분석의 초점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연구주제는 분석주제 설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줌으로써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재편성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주제는 연구주제의 하위주제영역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줌으로써 연구주제와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주제들은 한 번에 결정되기보다는 데이터 수집 후 데이터를 충분히 읽고 개념화 작업과정 중에도 수정을 거쳐서 얻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구조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문화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가' 등 분석주제를 3가지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개념화는 분석작업시트를 통해서 진행된다. 수정근거이론에서는 분석작업시트가 데이터의 분석틀이 된다. 분석작업시트는 크게 '개념명', '정의', '변수: 구체적 사례', '이론적 메모'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22개의 개념들이 도출되었으며 데이터와의 비교확인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11개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개념들에 대한 카테고리화는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과 분석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의 큰 카테고리로 정리되었다. 분석 및 확인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리된 개념과 카테고리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과 관련한 개념 및 카테고리

카테고리		개 념	변수의 주요내용
사회적 배제구조		강제된 사회적 배제	문화향유기회의 박탈
		자발적 소외	스스로 사회적 배제 선택
문화복지 프로그램 기능	문화의 기능	본질적 기능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줌.
		도구적 기능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문화복지 프로그램 접근전략	다양한 창작체험기회 제공	문화향유권은 창작체험 개념
		다양한 장르를 통합한 과정중시의 비정형적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잠재능력 개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대상자의 주체적 참여	대상자의 주체화를 통한 자존감 증진
		공동체활동	계층의 구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취약계층의 사회적배제 전환구조	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자 변화유형	문화복지프로그램 참여자 변화	정서적 충족감, 가족 및 대인관계 변화, 긍정적 자아상, 역량강화, 공동체활동, 삶의 변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향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낙인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배제 해소 가능성

3) 자료의 수집 및 연구의 엄격성 확보

질적연구에서 자료수집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Denzin(1989)은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와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²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문화복지프로그램 담당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신뢰관계를 높이고 조사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절차를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분석결과는 보고회 형식으로 공유하게 됨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문화복지정책관련 전문가, 문화복지프로그램 실무자, 조사대상자 등을 초빙하여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찬가지로 자료분석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중인 현상에 '맞으며', 현상을 보다 '잘 끄집어내어', 그러면서도 충분히 '(의미가) 잘 통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분석작업시트를 통하여 현상에 잘 맞는 내용들을 데이터에서 끄집어내어 개념정의를 하고 개념을 명명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과는 다르게 수정근거이론에서는 포화상태에 대한 점검을 개념형성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개념의 명명단계에서 그 개념이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더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가면서 개념을 발견해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를 비교해가면서 개념과의 관계잇기작업을 시도하였다. 즉 카테고리 발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역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포화상태 점검작업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개념도를 그려서 현상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수집 및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수정근거이론에서 말하는 이론적 선택코딩작업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료에서 개념과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들 개념들에서 다시 원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동시병행적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20) 여기에서 내적타당도란 '관찰의 결과물이 실제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외적타당도란 '과연 조사대상자가 다른 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4. 분석결과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구조

문화복지실천가들이 말하는 문화향유권은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화향유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당위적 권리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의 박탈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강제된 사회적 배제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발적 사회적 배제로 나타난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강제된 사회적 배제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발적 소외는 상호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 속에서 작동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고착시키고 강화시킨다. 즉 경제적 빈곤에서 기인한 강제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키고 자존감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하여 자포자기의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의 변화가 힘들게 되어 빈곤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결국 빈곤의 악순환과 이러한 생활태도는 강제된 사회적 배제를 더욱 고착시키고 지속시킨다. 이와 같이 더욱 강화된 강제된 사회적 배제는 자발적 소외를 초래하는 개인적 요인을 심화시켜 자발적 소외현상이 강화되어간다.

(1) 강제된 사회적 배제

강제된 사회적 배제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향유기회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문화가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의 욕구보다 우선시되기는 힘든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고급 문화예술활동이나 문화관람은 고비용을 지불해야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들을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차적인 관심은 의식주의 해결에 있으며,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문화적 욕구가 표출되어 이의 충족 필요성을 의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식주의 해결조차 어려운 이들에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화활동 참여나 문화예술 관람은 일종의 사치이며, 더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를 통해 잠재적 역량을 개발, 스스로의 힘으로 주어진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 노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문화에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오히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삶의 향유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빈곤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배제

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접근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문화적 배제로 확대된다. 이는 결국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자발적 소외

자발적 소외는 빈곤과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로 자포자기의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성은 높은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이다. 이로 인해 사회와 일반인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므로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양식이나 가치, 태도의 변화 필요성이나 변화의지를 갖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소외된 상황에 순응하거나 알콜 중독 및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생활태도를 보인다.

이들에게 있어 문화란 가진 자들의 자기과시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자신들의 삶과 문화적 욕구를 연결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문화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마을축제나 문화제, 문화공연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러한 문화행사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하며 문화행사를 사회나 일반인에게 자신들의 소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들은 장구소리나 음악소리를 단순한 소음으로 받아들이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당장 그만두라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술을 마시고 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양태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일반인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즉, 계층 간의 격차를 초월하여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향유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소외시킨다. 이와 같이 문화향유기회로부터의 자발적 배제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향상, 정신적·심리적 치유, 자기개발,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기회로부터의 자기소외를 확대시킨다. 이는 강제된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킨다.

2)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전환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

(1) 문화의 기능

문화복지의 성격은 일차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사람의 삶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문화복지의 목적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그 방법은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의 제공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 등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복지의 목적과 접근방법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라는 보편적인 권리개념에 토대하고 있다.

문화복지의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잠재적 욕구와 역량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향유기회는 문화활동이라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된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은 문화향유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이를 향유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

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또한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위한 스스로의 변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배제를 극복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점에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회적·환경적·개인적 제약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역량개발과 아울러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은 문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화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의 내용이며 동시에 문화복지 및 문화복지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이다. 문화적 접근은 문화가 갖는 기능에 기초한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로서 기능한다. 문화복지프로그램에서 문화가 수행하는 역할은 삶의 내용으로서 문화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초한 기능과 이를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① 문화의 본질적 기능

문화복지실천가들은 문화가 수행하는 본질적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한다. 문화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행복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문화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사고의 지평을 확대하여 자신과 삶에 대해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다. 일상적인 삶이 주는 억압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심리적·정신적·영적인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경험한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인간의 삶의 내용인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본다.

문화복지실천가들에 의하면 문화적 욕구는 기본적 욕구로서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존의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야 표출된다는 속성을 갖는다. 경제적 욕구의 충족이 주요과제였던 과거에는 문화의 향유는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은 모든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광범위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문화의 향유가 특정 소수계층에 한정되는 사치로서의 인식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보편성원리에 입각해서 문화를 바라본다. 삶의 질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향유는 그 자체로서 행복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배제는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행복한 삶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문화의 도구적 기능

문화의 도구적 기능은 문화의 본질적 기능으로부터 파생된다. 인간다운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문화는 수단이자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문화복지실천가들에 의하면 문화는 변화, 자기개발, 자기정화, 소통과

교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문화의 이러한 도구적 기능에 의해 문화적 감수성 향상, 잠재능력의 개발, 자존감의 향상을 통한 주체성 확립,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도구적 기능으로서의 문화는 삶의 양식, 가치, 신념 등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변화는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새로운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하여 문화적 감수성이 습득된다. 문화적 감수성은 새롭고 창조적인 시각에서 자신과 세계,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사고와 가치, 삶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한다. 다양한 문화활동에의 참여는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획득된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 사고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또한 문화는 자신을 표현하는 기제이다.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상태를 풀어놓도록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자존감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이다. 진솔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의 생활경험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과의 라포가 형성되며 동료애, 연대의식 나아가 공동체의식이 함양되어간다. 특히 문화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인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접근전략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잠재 역량을 개발하여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주요 전략은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창작체험기회의 제공, 잠재적 역량 개발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중시의 비정형적 프로그램 운영, 자존감 증진 및 주체성 확립을 위한 대상자의 주체적 참여,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체활동 등이다.

① 다양한 창작체험기회 제공

문화적 감수성은 창조체험 속에서 일깨워지고 향상되어간다. 문화복지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문화향유기회의 제공은 단순히 문화예술활동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창작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잠재역량을 높이고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복지실천가들은 문화향유권을 창작체험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창조체험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문화를 향유할 수 없다고 본다. 주체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두 가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초기단계에서는 많이 보고 많이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수성이 개발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단순히 관객이나 대상자에 머물게 된다. 주체적 문화향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객 또는 대상자의 위치

에서 창조자의 위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문화예술창조활동을 통한 만족감은 영적인 충족감까지 포함하는데 이는 일상을 탈출해서 다양하고 자유롭게 자신들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활동 속에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정화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과정중시의 비정형적 프로그램 운영

잠재적 역량의 개발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접근방법의 특징은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정형적인 틀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 즉 하나의 장르만을 제공하기보다는 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장르를 통합하여 진행한다는 점이다. 정형화된 틀에 의해 움직이는 프로그램 진행방식은 참여자들의 창의성 개발과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제한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기능습득과정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문화감수성을 드러내는가,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 나아가는가의 과정에 오히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보이는 반응, 능력의 개발과 향상정도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프로그램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참여자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를 통합한 진행방식을 취한다. 아동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동화구연, 역할놀이, 미술과 영상을 활용한 자기표현하기, 캠프, 애니메이션 만들어보기, 부모와 함께 하는 오픈강좌, 발표회, 책만들기 등 각각의 장르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정형화된 다양한 장르의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특성적인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③ 대상자의 주체적 참여

참여하고 소통하고 창조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은 문화예술향유자의 주체화를 지향한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공자, 대상자 구분 없이 서로 소통하며 공동작업을 통해 대상자의 잠재적 문화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둔다. 단순히 관람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진행자의 주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즐거움을 만끽하며 자기성취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 자존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발적 배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강제된 사회적 배제를 완화 또는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④ 공동체활동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묻어나는 공동체예술을 강조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창작체험 및 창작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고, 나아가 이웃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동체활동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뿐 아니라 생활문화공동체활동을 위하여 자치적이고 독립된 문화활동동아리의 육성에 초점을 둔다. 문화동아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되거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으로 발전하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활동들로 발전된다. 특히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축제나 문화제 등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공동체활동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활동은 계층의 구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취약계층과 일반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모두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3)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전환구조

(1) 문화복지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 유형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주된 관심사이다. 문화복지실천가들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나타난 참여자들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다. 문화복지실천가들이 예시한 참여자들의 변화를 영역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문화복지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 유형

변화유형	변화내용
정서적 충족감	행복감 상승, 기대감과 희망 증대, 즐거움 경험
가족 및 대인관계	가족에 및 가족관계 향상, 감사의 마음, 친밀감 형성, 의사소통능력 향상
긍정적 자아상	자존감 획득, 자신감 향상, 자기이해, 자기문제의 객관화, 성격의 변화 자기표출, 카타르시스 경험
역량강화	창작능력 향상, 사고의 폭 확대
공동체활동	협력, 문제의 공동해결, 상호원조, 정보교류, 자원봉사활동 참여
삶의 변화	진로선택, 빈곤탈출

〈사례 1〉 정서적 충족감

...문화라는 부분에 장을 만들어드리고, 참여하게 하고, 만끽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다양한 문화를 제공해줌으로 인해 이분들이... 거기에 향유에 젖어보고, 또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다음을 기다리더라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 그러니깐 그것만으로 복지 안에서의 문화는 또 다른 행복을 전달하는, 또 뭔가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공급체가 되더라고요.

〈사례 2〉 긍정적 자아상 : 자신감 획득

새로운 것들을 아이들이 접하다 보니깐, 문화적인 것들로 접하다 보니깐 자기표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교에서는 공부로 많이 평가받는데,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이 여기서는 사진도 잘 찍어서 칭찬해주는 건 아닌데, 그게 촉매역할을 하게 되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두려움 없이 하는 거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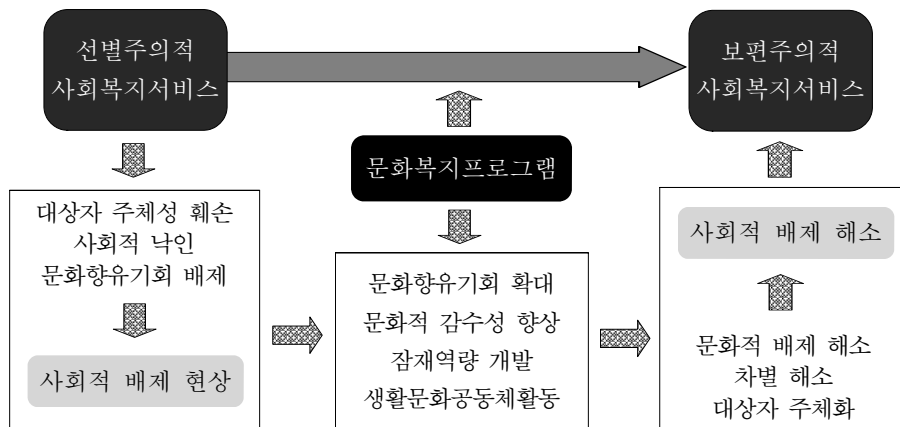
〈사례 3〉 삶의 변화 : 빈곤탈출

미국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빈곤한 분들을 관찰하니깐 자존감내지는 가치로운 사람이다~라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저 분들의 가슴을 적셔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인문학 강좌를 하셨대요. 그걸 몇 년 동안 하니깐 당장 빈곤 탈피는 못하지만 그 분들이 내 존재가 가치롭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셨다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추적해보니깐 빈곤에서 조금은 탈피한.

(2)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사회적 배제 전환구조

문화복지실천가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적 접근의 당위성으로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향유권이다. 문화적 욕구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일반인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문화는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덜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적 접근에서는 대상을 객체화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주는 반면에 문화복지적 접근은 대상자의 주체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티그마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협의적 관점에서는 문화나 사회복지가 각각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해왔으나 광의적으로 보면 문화향유 자체가 복지라는 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문화복지실천가들은 사회복지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구분하는 단편적 접근방식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시킬 수 없다고 본다. 대상자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화와 복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긴밀히 결합되어 제공될 때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전환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전환구조

전통적으로 국가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빈곤과 그로 인한 불평등 또는 박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극빈층에게만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선별주의에 입각한 시혜적 서비스제공방식은 그 자체가 차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를 객체화하고 수혜자의 위치에 머물게 함으로써 대상자의 주체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대상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주고 빈곤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서비스 또한 빈곤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향유기회의 배제를 가져왔다. 결국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문화복지이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문화향유기회의 제공은 일차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 배제를 해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동시에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자존감을 높여주어 주체적인 변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생활문화공동체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인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앞의 <사례3>은 비록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즉각적으로 해소시키는 효과는 아니더라도 자존감을 획득하고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배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배제의 해소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복지실천가들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에 문화를 접목시킨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야기해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배제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의 주체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실천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질적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구조,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 그리고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사회적 배제 전환구조 등과 같은 개념이 주요 범주로 정리되었다. 이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구조에서 이들에 대한 문화향유기회의 박탈은 크게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과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삶의 향유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해 후자는 개인의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하여 문화복지활동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에서 먼저, 문화는 본질적으로 자신과 삶에 대해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줌으로써 삶의 내용인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고, 이는 개인의 자기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다.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접근전략과 그 성과는 (1) 다양한 창작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문화감수성을 개발하고, 영적 충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 창의성 개발과 잠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과정중심의 비정형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예술 향유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자, 대상자 구분 없이 공동작업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4) 일상생활 속에 공동체예술의 장을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 다양한 협력활동으로 사회통합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등으로 정리된다.

셋째, 문화복지프로그램은 문화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전환구조의 성격을 띤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잠재역량과 자존감을 높여주어 주체적인 삶의 변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배제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 배제의 해소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상의 내용들에서 볼 때 문화복지프로그램은 개인들에게 문화감수성을 높여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기회의 박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의 '접근권 보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이 생활 근거지에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복지가 개인의 잠재적인 역량을 높이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상당수가 불안정한 기금제공 형식이나 혹은 취약한 예산배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실질적인 사업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복지프로그램은 문화가 갖는 본질적이고, 도구적인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영역에 적극적으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사회적 낙인감(Stigma)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단순히 문화예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는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관리적 차원의 수준에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실정이다. 향후 사회복지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충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들로 하여금 단기적으로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배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요소를 띠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영역의 전문가들에게도 이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의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다양한 전문영역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문화영역과의 결합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문화복지의 실천전략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과연 어느 정도 자기 삶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잠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가, 혹은 문화복지활동의 장을 통하여 이웃과 어떠한 관계형성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등의 이용자 생활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결과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기덕. 2007.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3(2): 369-388.
- 김상호. 2003. “한국빈곤정책과 빈곤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운. 2005. “공공임대주택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서울 등촌3동 영구임대단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훈·김정열·모선희·설동훈·김미권. 200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영란. 2004.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45-273.
- 김위정. 2003.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2007.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 사례 연구-”. 전북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류지웅. 200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문화체육관광부. 2004. 창의한국.
- 박미애. 2009.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 관련 사례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160-175.

- 박영미. 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11-41.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_____. 2009b.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현황.
- _____. 2009c. 200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변중임·고영상·고혜원·강창현·이희수·채재은. 2007.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노동·복지 연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송다영. 2003.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54: 295-319.
- 신명호. 2004.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도시와 빈곤』 67: 160-170.
- 신선정. 2008. “사회적 취약계층이 여가·관광 의미와 제약요인”. 대한관광경영학회 제31차 정기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845-861.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우아영. 2007. “빈곤담론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영훈. 2008. “직업훈련의 소득계층별 효과에 관한 연구: 취업가능성을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오혜경. 2006. 미래의 국민복지정책으로서의 문화복지-문화소외계층의 문화활동 확대방안 : 문화복지 10년, 그 성찰과 전망.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문화복지협의회.
- 윤성호. 2005.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49-176.
- 양건열. 2003.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경아. 2007. “소득양극화 심화에 대한 참여정부 예술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예술향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익섭·최정아·이동영. 2007.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4: 49-81.
- 주재현. 2004. “사회복지와 문화-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문화이론적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279-308.
- 조현성·김세훈. 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현성·김영범·이주연. 2003. “노인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옥채. 2007.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복지의 개념화”.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03-307.
- 최종혁·이연·안태숙·유영주. 2009. “문화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145-182.
- 최현묵. 2008.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복지로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통계청. 2009. 2008 체류외국인현황
- 현택수. 2006.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 101-122.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Room, G.(ed.),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cy Press.
- Byrne, David. 2005. Social Exclusion.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Hills, J., Le Grand, J., and Piachaud, D. 2002.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 C. C. and R. White. 2003. "Conceptualizing Social Inclusion : Some Lessons for Action". *Municipal Engineer* 156 (ME2): 91-95.

木下康仁(기노시다야스히토). 2003. M-GTA(Modifide Grounded Theory Approach) 그랜데드·세오리·아プローチ의 實踐. 일본: 弘文堂.

_____. 2007. 라이브講義M-GTA(Modifide Grounded Theory Approach) 實踐的 質的研究法. 일본: 弘文堂.

www.birmingham.gov.uk 버밍햄 정부

www.kennedy-center.org 케네디센터

A Study about the Function of Culture Welfare Programs for Dissolving Social Exclusion about the Social Vulnerable Classes - A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on the Culture Welfare Practitioners -

Choi, Jong-Hyug

(Kangnam University)

Lee, Yun

(Dongainjae University)

Yu, Young-Ju

(Kangnam University)

Ahn, Tae-Sook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look for the possibility of dissolving social exclusion about the social vulnerable classes through the culture welfare program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interview records focused on the culture welfare practitioners applying the 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 worked out by Kinoshi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ulture welfare programs functionated of dissolving social exclusion about the social weaks by enhancing latent faculties and the sense of self-respect of them through providing various opportunities of culture fruition. It was appeared that the culture welfare programs promoted creative competence and the sense of self-respect, and strengthened the sense of solidarity of the participants by using the approaching strategies of offering various opportunities of creational experience, atypical operating programs centered on the process, establishing of the participants' subjecthood, and communal activities. That is, it was proved that actually the social weaks experienced the change of life with feeling emotional satisfaction, promoting family and human relationship, establishing positive identity, empowerment, participating communal activities, and so on, through the culture welfare programs. From these results we can know that if we provide the programs mixing the culture welfare programs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traditionally reinforced social exclusion about the social vulnerable classes by stigma, the social exclusion about them can be dissolved.

Key words: social vulnerable class, social exclusion, social stigma, culture, culture fruition, culture welfare program

[논문 접수일: 09. 10. 07, 심사일: 09. 10. 27, 게재 확정일: 09. 11. 21]